

주민불편 해결사 노릇 톡톡

순창군, 교통안전분야 불편사항 발빠른 조치 11월 현재 공정률 90%

순창군이 교통안전과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황숙주 군수가 마을방문시 접수된 미원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된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업들에 대한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이 추진한 사업은 과속방지턱 8개소, 교통표지판 13개소, 반사경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저감 시설 1개소, 마을앞 경보 등 설치 1개소, 기타 안전시설물 18개소를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순창을 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최근 차량통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구림면 화안마을 앞 경보등 설치 등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군은 황 군수의 현장 방문 시 건의했던 사업들과 개별 접수된 민원들에



순창군은 지난 30일 하반기 신청된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업들에 대한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해 관계부서에서 즉각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즉각 반영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11월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순창읍에 사는 이모(42, 여)씨는 "아이가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항상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

았는데 이번 과속 방지턱 이 설치돼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사업추진을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민원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 하도록 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올해 1억 여원을 투자해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 설치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건강 100세 지향... 암 예방·관리 만전

국가암검진 수검률 분야 임실군, 우수기관 선정 정성 쏟는 보건행정 인정

임실군이 지역민들의 암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한 지자체로 꼽혔다.

지난 30일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주관한 '2017 전북지역 암 관리 및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암검진 수검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올해 암 관리사업 추진상황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국가암관리 사업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평가는 암 관리 및 국가건강검진 분야의 시군 우수사례 중 세부지표에 따라 암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 검



임실군이 '2017 전북지역 암 관리 및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 암검진 수검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 수검률,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이뤄졌다.

군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암 진단 및 암 치료비를 적극 지원해 왔다.

무엇보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성을 쏟는 보건행정을 펼쳐왔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암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비롯, 조기검진 등을 적극 실현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검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순창골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순창골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회장 오병복)가 지난 28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7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식품 수출현장의 우수한 성과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타 수출경영체와 공유하고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전국에서 22개 수출경영체가 참가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업체가 지난 28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순창골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는 50농가가 지리산자락의 여름철 준고랭지 기상을 활용해 27ha에서 연간 3,500여톤을 생산해 11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생산량의 30% 정도를 일본, 대만, 호주 등의 국가에 수출하여 35억 원의 외화를 끌어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농협 APC에서 공동선별을 실시해 연 5,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수출파프리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용 저압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ICT를 기반으로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을 2012년부터 도입하여 정밀농업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수출시 강화되고 있는 안전성 위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해충방제용 천적공급과 연2회 이상의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파프리카 작목회에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생산자재 구입시 공동구매와 공동육묘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출하 예방 및 지속적인 출하를 위해 3차에 걸쳐 분산정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회원이 GAP 인증을 획득·실천하도록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에는 파프리카 국내육성품종인 '헤스티아' 품종재배를 확대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파프리카 직접정식 기술을 확대보급하고 ICT를 기반으로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기술을 확대 보급해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해 국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은 동절기 신속한 현방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순창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출동'

순창군이 지난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 발굴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가정이나 수급 탈락자,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계 빛이 많은 사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군은 읍면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상담을 연계시키는 등 신속한

현방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기간에 발견된 대상자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에 내실 있는 조사를 벌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정산금 지급

남원시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5,258.64톤, 시장격리곡 5,627.12톤을 산물벼 679톤, 건조벼 1만206.76톤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10,885.76톤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28일 기준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8,371톤으로 76.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확기와 연말 농촌의 각종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 11월 중순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최종 지난 28일부터 등급별로 지급을 해오고 있다.

이번 중간정산금은 40kg기준 포대벼 특등급 3만990원, 1등 3만원 2등 2만 8,660원 3등 2만5,510원이며, 산물벼 특등급 3만126원, 1등 2만9,136원, 2등 2만 7,796원, 3등 2만4,646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산물벼 매입시 건조료 명목으로 매입대금 3,000원을 기지급받은 농가는 산물벼 확정금액에서 3,000원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임실군이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절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수렵인 25명을 선발해 4개 권역으로 운영된다.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관할 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보호과(640-2351)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따뜻한 월동준비, 행복꾸러미 전달

임실군 사랑의열매 봉사단(단장 정점례)은 지난 30일 '행복꾸러미' 전달식을 열었다. 군청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박진두 부군수, 봉사단원,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임실군 사랑의열매 봉사단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매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봉사원과 사회복지담당자가 어려운 이웃 370여대를 직접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정점례 단장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하며 나누면 배가 된다"는 사랑과 행복을 체감한다"며 "추운 날씨에 마음까지 추운 이웃이 없도록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